



# 서로 도움 주며 더불어 살거예요



1급 시각장애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함께 사는 슬비네.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지수와 5촌 떨어진 외할아버지 장애인 외할머니.

## 슬비네-쌀 떨어져 며칠째 라면 할아버지 낙상 생계 극도로 어려워 손혜숙씨 "엄마의 정 전하겠다"

“엄마 아빠가 새로 생겼어요”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을 전개해온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결연신청한 경기도 고양시 김성권 거사와 손혜숙 보살이 3월 22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추천으로 후원가족을 만났다.  
강북구 변동초등학교 4학년 이슬비의 집을 방문한 손혜숙 보살은 주방을 둘러본 뒤 가장 먼저 40kg들이 쌀 한포대를 주문해야 했다. 슬비네는 쌀이 떨어져 며칠간 라면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 1급 외할아버지 이영치씨, 외할머니 전정자씨와 반동 임대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슬비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가출해버렸지만 밝고 착하게 성장했다. 남들처럼 학원에는 못가지만 매일 인근 복지관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에 꾸준히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다.  
지난해 9월까지 외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껌

## ‘나눔의 손잡기’ 소녀가장 결연 김성권씨, 손혜숙씨네

을 팔아 월 10~15만원, 외할머니가 취로사업으로 월 16만원 정도를 벌어들였을 때만 해도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1급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해 3층높이에서 떨어진 후 거동을 못하게 되고, 병원비까지 빌려서 갚다보니 임대 아파트 관리비와 임대료가 밀려 길거리로 나왔을 상황이었다.  
이날 슬비집을 방문한 손혜숙 보살은 “매달 후원을 조금씩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찾아와 엄마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동의 2층건물 허름한 5평짜리 옥탑방에서 동생 홍은지와 외가족으로 5촌 떨어진 할아버지 박해룡, 장애인 할머니 김옥자씨와 살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소녀가장 홍지수(정의중 2)네를 방문한 김성권 거사.  
지수의 외할아버지 박해룡씨가 “지난해 경제가

## 지수네-후원자 끊겨 어려운 삶 5평방에 조부모, 동생과 기거 김성권씨 “밝게 자라도록 돕겠다”

어려워지면서 월 5만원씩 후원해주던 후원자가 끊겨 어렵게 살아왔다”며 “아이들을 위해 큰마음을 내줘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먼저 감사함을 표했다.  
김 거사는 손사래를 치며 “작년까지 사회에서 잘나갈 때만 해도 이웃을 어려움을 잘 몰랐다”며 “지난해 병을 얻어 어려운 지경에 놓이다보니 불교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거사는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를 줄여 지수 자매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나눠주겠다”며 “가족과 함께 자주 찾아와 오래도록 인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김막자씨 4남매 생계에 하루하루 걱정

발목다쳐 벌이 못해 양육비 부족  
부산에서 어린 4남매를 키우는 홀어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왔다. 초등학교 1학년인 첫째 아이와 7살인 둘째, 5살인 셋째 아이, 두 살배기 어린 막내를 키우고 있는 김막자(35·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씨의 이야기다.  
2년전 남편과 이혼한 김 씨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집념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발목을 다쳤다. 돈을 벌어야 했기에 다친 발목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오랜 시간 걸거나 서있기도 힘든 지경이

됐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건만 마음 뻐, 대신 맡아줄 곳 없는 두 살배기 막내아이는 김 씨를 잠시도 놓아주지 않는다.  
지금 김씨의 다섯 식구에게 주어지는 돈은 정 부지원금 62만원, 초등학교 1학년인 첫째 아이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 셋째 아이의 교육비, 막내 아이의 양육비 등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대기에도 형편없이 적다. 게다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지출도 점점 늘어 김 씨는 하루



발목을 다쳐 거동도 어려운 김막자씨가 아이들을 안고 있다. 하루 걱정과 긴 한숨 뿐이다. (051)973-0279 박봉영 기자

## 생명나눔 실천회, 장기기증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참여단체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가 3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이고, 총 22명의 장기 기증 신청을 받았다(사진). 신청자는 신장기증 4명, 사후각막기증 5명, 사후 시신기증 4명, 뇌사장기기증 5명, 생전 골수기증 2명, 화장문화동참 2명 등이다. 문의 (02) 734-8050 김철우 기자

## 안성 수암정사, 경로잔치

안성 수암정사주지 진광가 3월 31일 오전 11시 독립문 소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연다. 500여 노인을 초청하는 이날 잔치는 오후 3시까지 공양과 능인 스님(강동 백운사의 찬불가요, 각설이 타령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문의 (031) 653-8077

##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 도와주세요

‘시각의 수호천사를 찾습니다.’  
서울 성북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 독거노인 가정 결연’ 사업을 전개한다. 후원 방식은 결연 및 기금 후원. 결연은 매월 5천원 기탁, 기금은 경로잔치·약품 구입, 김장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물품은 생활용품, 전자제품, 의류, 식품품. 후원계좌: 048-162860-13-204(예금주 성북노인복지관)

## ‘나누면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명궁)은 장애인들의 교육비, 생계비, 보장구 등을 후원하는 ‘나눔의 있어 세상은 행복합니다’라는 운동을 벌인다. 후원계좌: 서울은행 34601-2660021(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나눔의 손잡기 동참

- 한미음선원(원장 대행 스님)이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다음은 각 지역 한미음선원 2차 동참내역이다.
- 충북 음성군 공영읍 광명선원(주지 청백 스님) 저금통-50개 스티커-100장
- 제주도 제주시 한미음선원 제주지원(혜묘 스님) 저금통-20개 스티커-100장
- 강원도 강릉시 한미음선원 강릉지원(주지 혜인 스님) 저금통-50개 스티커-100장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한미음선원 중부경남지원(주지 혜보 스님) 저금통-50개 스티커-100장
- 경남 통영시 한미음선원 통영지원(주지 혜연 스님) 저금통-100개 스티커-100장
- 전남 목포 한미음선원 목포지원(주지 혜제 스님) 저금통 30개 스티커-50장
- 대전광역시 한미음선원 대전지원(주지 혜능 스님) 저금통-30개 스티커-100장
- 청주시 한미음선원 청주지원(주지 청봉 스님) 저금통-30개 스티커-100장

## 나눔의 가게

- 부산 진시장 여성양장지 전문도매상  
대상상회 051-646-5757
- 강릉 금학동 골프리류 도매  
임페리얼 강릉점 033-646-7098
- 광주 방림동 여성전문 의류점  
그린산부인과 062-650-7700
- 천안 백석동 구두,도장,열쇠전문  
백석주공열쇠 011-9820-6160

##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할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 알립니다

## 나눔저금통 5월 15일 1차 수거 현재 전국 3천여개 배포

현대불교신문사가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 일환으로 전국에 배포한 나눔저금통이 3천개를 넘어섰습니다. 본사에서는 상반기에 분양된 나눔저금통을 5월 15일 1차로 수거합니다. 채우지 못한 저금통은 10월 10일까지 본사로 전달하거나 기부자 명의로 입금해 주십시오. 지역 사찰의 경우 신도들이 채운 저금통을 함께 분해하여 기부자 명의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또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됩니다. 상호와 업체, 주소, 전화번호를 본사에 꼭 알려주세요. 문의 (02) 722-4162-3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가) 법륜 및 세무 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종교계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하십시오.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와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 자비의 현찰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찰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ARS 060-700-1080

